



## 축산물HACCP기준원

### 닭농장 HACCP 100호 지정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곽형근)은 닭농장 100호 HACCP 적용농장을 7월 20일자로 지정하였다.

제100호 HACCP지정 닭농장인 준희농장(대표 정희자)은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에 위치한 40,000수 규모의 육계농장으로 체리부르에 닭을 출하하고 있다. 이 농장은 '07년 11월에 친환경축산물(무항생제) 인증을 받은 바 있으며, 이번 HACCP 지정으로 한층 더 안전성이 확보된 육계농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가축사육단계(닭농장) HACCP은 작년 5월 2일 접수를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115개 농장이 지정신청하여 100개 농장이 지정되었으며, 15개 농장은 심사중에 있다. 현재 닭농장은 지역조합과 브랜드경영체를 중심으로 HACCP을 추진 중에 있어 올 하반기에도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오리농장 HACCP 1호 지정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원장 곽형근)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오리농장 HACCP평가기준에 의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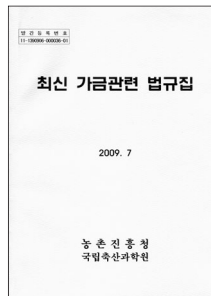
하여 오리농장 1호 HACCP적용 농장을 지난 7월 27일자로 지정하였다.

제1호 HACCP지정 오리농장인 류도현한방향오리농장(대표 류도현)은 충청남도 천안시 수신면에 위치한 30,000수 규모 농장으로, 자체 가공하여 CJ홈쇼핑, 갤러리아백화점 등에 납품하고 있다. 이번 오리농장으로서는 최초 HACCP 지정으로 인해 더욱 안전성이 확보된 오리농장으로 자리매김함과 동시에 향후 다른 오리농장의 HACCP 지정도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곽형근 원장은 7월 30일 제 1호 HACCP적용 오리농장 지정서를 류도현한방향오리농장 류도현 대표 이사에게 전달하고 그간의 노력을 치하한 후, 제1호 지정 오리농장으로서의 명예를 지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농촌진흥청

### 최신 가금관련 법규집 발간



최근 축산을 둘러싼 환경에 많은 변화로 관련법규 등이 수시로 개정되고 있고, 축산농가 및 현장에서 개정된 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농촌진흥법 등 13가지 관련 법률 중 가금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만을 발췌하여 가금관련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최신 가금관련 법규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새로이 발간되는 법규집에는 기존의 축산법령집에서 각각 분리되어 있었던 가금 분야의 법, 명령, 규칙 및 고시 등을 한 곳에 정리하고 기존가금 관련 시설과 사양, 환경, 육종, 번식 유통에 대한 내용에서 더 나아가 가금의 개량·증식, 구조개선, 의약품 취급에 관한 사항도 함께 정리해 놓았다.

또한 최근에 개정된 가금관련 법령을 추가시켜 가금 산업 관계자 및 연구자, 농가 및 현장에서 개정된 법규에 대한 정보와 제도적 이해를 넓히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가금 관련 법규집 문의는 농촌진흥청 가금과(041-580-6701)로 하면 된다.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검역원 정병열 박사, 세계인명사전에 잇달아 등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정병열 박사가 미국에서 발행하는 세계인명사전(Who's Who in the World)에 이어 영국 국제인명센터(IBC)에서 발행하는 "전세계 100명의 의학전문가"로 선정되었다.

정병열 박사는 수의 세균 및 공중보건 전문가로서 병원성 대장균 O-157, 렙토스피라병, 요네병 등 주요 인수공통전염병과 가축의 소모성 질병 등에 대하여 16편의 국제 학술지(SCI)와 52편의 국내 학술지에 발표한 바가 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서 매년 수백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렙토스피라병에 대해 많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렙토스피라병은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향후 사람뿐 만 아니라 가축에서도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질병으로, 가축에서의 유행형을 밝힘으로서 진단 및

예방치료를 위한 초석을 만들었으며, 사람의 렙토스피라병 감염 원인이 가축에 의한 전파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등 많은 연구 성과를 이룩하였다.

정병열 박사는 "그 동안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질병진단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이며, 양축 농가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신속 진단 및 현장 중심의 연구에 매진하여 가축 질병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 축산물등급판정소

### 2009년 현장연구조사 중간 발표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재용)는 올해에도 축산물등급판정의 과학화를 견인하고 축산물 등급판정 업무 및 식육관련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현장 문제 해결 과제와 전문성 심화 과제를 발굴·선정하여 수행해 오고 있는 「2009년 현장연구조사」의 중간발표를 지난 7월 27일 가졌다.

이번 현장연구조사에는 현장 접근성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과제가 많아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등급판정 업무를 병행하면서 생산자·유통업자·소비자를 위해 연구조사 한 결과들은 등

급판정 업무 개선과 고급육 생산 컨설팅 등 농가지도 자료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며 「2009년 현장연구조사 결과 보고서」로도 발간될 예정이다.

중간발표회에서 계란·닭고기 부문에는 ① “계란의 선별 및 유통단계별 위생안전성 제고에 대한 비교” - 원료란, 세척후, 건조후, 난각코팅후, UV살균후의 난각 표면 미생물 수치를 검사와 신선도 변화를 조사하여 위생적인 계란생산시스템 확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 ② “VQIS를 이용한 닭도체 기계등급판정 가능성 고찰” - Visual Quality Inspection System 카메라로 찍은 이미지의 RGB Color 중 픽셀 B표기값 등을 이용하여 닭도체의 품질을 기계적으로 등급판정하는 방법 ③ “닭고기 신선육과 해동육의 기계적 판별법 연구” - 향후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냉동닭고기의 수입 증가와 여름철 수요 급증 등에 의한 해동 닭고기의 신선육으로 둔갑 판매방지를 위한 기계적 판별법 모색 등이 있다.

### 종축개량 및 등급판정 정보 공유 MOU 체결

(사)한국종축개량협회(회장 조병대)와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재용)는 지난 8월 19일 등급판정소 대회의실에서 양 기관의 기관장을 포함하여 3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종축개량 및 등급판정 정보 상호공유에 관한 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종축개량협회와 등급판정소는 우리나라 가축개량과 축산물의 품질향상이라는 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이후 이와 관련된 광범위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양 기관과 우리나라의 축산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종축개량협회는 등급판정소가 제공하는 개

체별 등급판정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종축의 육종가를 보다 쉽게 산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등급판정소도 가축개량정보를 등급판정결과의 대농가 피드백에 활용하고 쇠고기이력추적시스템과 연계시킬 경우 이를 통한 시너지 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병대 회장과 이재용 소장은 이번 협약식을 통해 종축개량 및 등급판정 정보 공유 외에도 인적·물적 자원과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종축의 개량과 축산물의 품질평가와 관련된 연구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함과 아울러 기술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구체화하기로 합의하였다.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 2009년 도축검사보조원 보수교육 실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본부장 배상호)는 지난 7월 23일부터 충주소재 농협교육원에서 도축검사보조원 150명을 3기수로 나눠 검사업무 능력향상을 위한 ‘2009년 도축검사보조원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배상호 본부장은 지난 7월 23일 제1기 입교식에서 “한·미, 한·EU FTA 등 수입개방화시대에 국내

축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구제역, 고병원성조류 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의 질병청정화와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식품을 국민에게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도축검사원들은 정부의 축산물 위생 안전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하여 검사원 스스로 자질 향상과 전문지식을 함양시킴으로써 신속·정확한 도축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가에 피드백함으로써 고객에게 만족과 감동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번 교육은 농림수산식품부 안전위생과 담당관의 “축산물 위생 안전관리 대책” 강의에 이어 “최근 소·돼지질병 발생동향”, “내장검사 병변의 실제사례” 등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도축검사원들이 검사과정에서 발견한 특이병변 사례와 검사업무 개선사례 발표를 통하여 검사현장에 접목할 수 있도록 했다.

## 토종닭산업 발전을 위한 무료 시식회 개최 국회에서 전북토종삼계탕 시식



(사)한국토종닭 협회(회장 김연수)는 6월 11일 (사)한국전북협회와 MOU를 체결하고 토종닭(재래닭)과 전북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7월 24일 중북을 맞이하여 국회에서 전북토종삼계탕 무료 시식행사를 가졌다. 동협회는 우리 고유의 토종닭(재래닭)의 우수성 홍보를 위하여 이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좋은 호평을

얻었다.

## 전국메추리생산자연합회 임시총회 개최...이의경 회장 체제 출범



전국메추리생산자연합회는 지난 7월 28일 충남 천안 소재 세종웨딩홀에서 메추리농가 및 관계자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시총회에서는 이의경 씨(전북 완주·얼룩뼈 기영농조합법인)가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고, 이의경 신임회장을 중심으로 부회장 및 고문 등 새로운 임원진을 구성하는 한편, 일부 정관에 대한 개정도 있었다.

임시총회를 마치고 시작된 이취임식에서 이의경 신임회장은 “회원들의 권익보호와 메추리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서는 회원들간의 화합과 단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날 이수웅 전임회장을 고문으로 추대하고, 이종관 전임 사무국장, 김일수 운영실장과 더불어 공로패를 수여했다.

새롭게 구성된 임원진은 ▲고문 - 김정호, 이수웅 ▲부회장 - 김홍균, 남병환 ▲감사 - 김갑환, 김경일 ▲사무국장 - 김정학 등이다.